

낙동정맥 종주를 위한 훈련산행

생물환경표준과 화공사무관 최월영
02) 509-7262

- ▶ 산행일시 : 2004년 9월 26일(일요일) 날씨 : 맑음안개
- ▶ 산행지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제군 북면
- ▶ 산행코스 : 묵우재-달마봉-계조암-울산바위-갈림길-미시령
- ◎ 산행거리 : 약 14Km(도상거리)
- ◎ 산행시간 : 5시간 20분

백두대간을 마치고 8월의 휴식기를 지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추석을 목전에 두고 11월 낙동정맥 산행전에 숨고르기를 위한 실악산 면방 산행을 선택한다. 항상 휴식년제인 출입제한지역을 동행하여야만 산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이 부겁지만 안내산행으로 명산회에서 추석연휴를 이용하여 미시령휴게소에서 묵우재까지 산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9월12일의 우중산행에서 실패하였던 구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9월26일 당일 산행을 신청한다.

9월 12일 묵우재에서 달마봉을 기쳐 울산바위에서 실악동으로 하산하기로 하였으나, 안개와 비로 10미터 앞도 분간 못하는 상황에서 실악동과는 반대 방향인 학사평저수지쪽으로 하산하면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그 날 지도와 콤팩스도 준비하지도 않고 부작정

산행을 한 것은 편악산을 가면서도 지도를 꼭 지참하는 준비에 비하면 너무나 준비를 소홀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자위해본다.

9월26일 새벽 5시30분에 기상하여 산행준비를 하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는 밤계역 24시 김밥집에서 3인분의 식사를 위해 김밥 5줄을 냉장고통(락엔락통)에 넣고 양재 구민회관을 향하여 917번 버스(금정~삼삼)에 몸을 실는다.

양재 구민회관에 도착하니 6시40분. 추석전이라 그런지 평소 토·일요일의 등산객들로 인한 부산함은 어디 가고 앞서온 낮모르는 아저씨 한 분뿐이다. 농대문시장에서 타고 온 사대천왕 중의 증장과 지국천왕에게 전화를 해 보니 농대문시장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적어 예약을 하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승차하여 자리가 몇 개 없어 간신히 자리를 한 개 맡아 놓았구나.

7시 25분 상아관광 버스가 도착하고 자리 하나를 차지하여 몸을 의지하며 벽구름이 조금 하늘을 가린 서운을 뒤로 하고 버스는 달려나간다. 추석전의 분위기에 감맞지 않게 도로는 평상시보다 더 한기한 것 같다. 버스는 성남 북정역을 기쳐 실악산을 향하여 나아간다.

양평을 지나면서 실악대장의 설명이 미시령은 국립공원 감지원이 상주하고 있어 산행 들머리로 갈 수

없고 북우체에서 계조암 상가지대를 지나 실악동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허나 우리는 목우체에서 미시령까지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증장과 지국에게 목우체에서 미시령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산악대장에게 산행방향을 물어보고 오후 5시경에 미시령휴게소에서 만나 비스를 타기로 하였다.

11시34분 북우체 등반 시작

목우체 등반 초입은 미시령 끝 지점에서 직산운전을 지나 실악동으로 넘어가는 가파른 고개(현재 터널 공사중) 마루에 실망으로 출입제한을 한 구역으로 들러야 한다. 마루급 초입은 길이 잘 닦여 있어 조금만 주의하여 보면 출입구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어김없이 출입제한 표시판이 세워져 있고 일반적으로 송이버섯 채취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다. 산행 소로길 주위를 살펴보면 소나무 밑둥이 주위가 온통 피폐해 있어 송이버섯 채취가 얼마나 극심스러운지를 보여준다. 마루급 초반의 가파른 길을 조금 오르면 부딪이 보이고 길이 완만해지기 시작한다. 계속 잘 닦여진 길을 따라 30여분 가다 보면 표시기가 나오면서 임도와 소로가 갈라지며 잠시 혼란을 일으킨다. 임도를 버리고 표시기를 잘 살펴면서 소로를 따라 올라가면 바로 잠목이 우거진 능선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미시령 고개길과 속초시내가 눈에 들어오고 왼쪽으로 철담이 보인다.

능선 소로를 따라 계속 전진하면 시야가 확 트이면서 암릉지대가 나온다. 표시기를 잘 확인하면서 능선을 계속 전진하면 커다란 바위가 나오며 잠시 걸음을 주춤하게 만들면서 여기가 달마봉이 아닌가 혼란을 일으킨다. 일단 바위 능선을 올라 조망을 살펴보면 12

시 방향에 우뚝 솟은 달마봉이 보이고 조금 멀리 2시 방향으로 울산바위의 앞면이 보이면서 진행 방향을 가늠하게 만든다. 바위능선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후진하여 무명 바위봉 올라가는 초입에 표시기를 잘 보고 왼쪽으로 9부 능선을 타고 전진하여야 한다. 무명 바위봉에서 능선을 타고 계속 전진하면 위험한 암릉지대가 나오고 암릉지대를 계속 전진하였다면 로프가 베어 있는 바위 부분에서 후진하여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오면 소로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전진하면 달마봉이 나온다.(이 길은 9월 12일에 안개와 비를 맞으며 1시간 이상을 허비하면서 겨우 찾아낸 길이다)

무명 바위봉에서 8~9부 능선을 타고 5분 정도 전진하면 암릉지대가 나오면서 실악산의 반등을 밟아가는 기분을 느끼게하는 웅장한 바위군이 나온다. 여기서 조금 고개를 치고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오고 왼쪽은 실악봉 초입으로 하산하는 길이요 오른쪽으로 전진하다 조금가면 달마봉의 옆구리가 나오면서 바위의 크기에 일단 압도당한다.

달마봉 도착(12:36)

달마봉 옆구리 끝지점에 주의해서 살펴보면 달마봉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나오고 뗏지를 하여 20m 정도 올라가면 달마봉 정상 마루 밑 넓은 바위에 도착하고 저 멀리 권금성 케이블카가 보이고 토왕성폭포의 물 줄기가 구름 사이로 보이기 시작한다. 일년에 몇 번 밖에 볼 수 없는 기회를 잘 잡아 울산바위의 옆면을 바라볼 수 있는 기분은 웬지 쉼없다. 안개와 비에 가려 있는 시간이 많은 울산바위 꼭대기가 모습을 보이면서 3번째 산행에 겨우 마리보는 울산바위 일곱이여. 달마봉정상에서의 휴식을 뒤로하고 임시로

선택한 로프를 잡고 하산하여 조금은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는 달마봉의 반신 절벽은 족히 100m는 넘어 보인다. 권금성에서 바라보았던 달마의 얼굴은 사라지고 수직암벽이 산나그네의 기를 죽인다.

우린 미시령까지 가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휴식을 짧게 하면서 부지런히 발을 움직여 내리막 암릉 능선을 따라 진행한다.

점심식사(13:00)

중장천왕이 배가 고파 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여 사방이 잘 보이는 평평한 바위를 찾아 산중 식당을 차리고 히기진 메를 채우고 느긋한 기분으로 경치를 구경한다. 온려다 보는 울산바위, 신흥사, 눈을 들어 권금성 과 케이블카를 보면서 잠시 무아지경에 빠져본다.

13시 20분 산중의 오찬을 마치고 다시 출발한다.

계조암, 흔들바위(14:00)

암릉지대를 내려가다 디덕 빙재로 잠시 지체하고 표지석을 찾아 방향을 확인한 후 작은 마루감을 넘어 서니 오늘의 중간 기착지인 계조암의 양중스러운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목우재에서 여기 까지 오면서 표지기의 특별한 점은 산악회 표시가 없고 일반적인 노끈, 포장지 찢은 것 등 누가 달아놓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다. 계조암 북전에도 녹두색 및 분홍색의 표시기가 좌우로 나뉘어 길을 안내 할 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계조암에 올라 서니 신흥사에서 올라온 일반 등반객들로 북적거리고 울산바위 올라가는 입구는 장너를

이루고 있다.

흔들바위에서 증명사진을 찍고 울산바위를 한번 쳐다보고는 우리의 두 번째 목적지인 1.09봉 가는 길을 찾기 위하여 울산바위 올라가는 길을 따라 가면서 셋 길을 찾기 시작한다.

울산바위쪽으로 가다 보면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다는 산악대장의 말을 되새기며 조심스럽게 셋길을 찾아 보지만 여기서 하는 곳은 나오지 않아 이럼짐작으로 소로를 따라 나아 가기로하고 무작정 앞길로 들어간다. 처음에는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5분 정도 나아가니 발자국도 없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잘 잡을 수가 없다. 그래도 일단 울산바위 옆구리를 디뎌어 가면 길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잡목숲을 헤쳐가며 열심히 발자국을 더듬어 나아가니 힘도 들고 머리속에서는 되돌아 가자는 명령이 자꾸만 하달되지만 발걸음은 그래도 시작한 길 끝까지 전진해보자고 고집을 피운다. 중간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선부를 바꾸어 가면서 헤메기를 1시간여 울산바위 끝머리를 막 벗어나는 시점에서 표시기와 소로를 발견하고는 길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실악산 변방에서 두 번째 길을 어렵게 찾아 가면서 마음속으로 역시 실악산은 부시운 곳이라고 생각해본다. 절대 전부를 허용하지 않는 거인의 자태에 다시 한번 인간의 어리석음을 반성해 본다. 시계는 오후 3시를 넘어 서고 갈길이 얼마 남아 있는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나마 뚜렷하게 붙어 있는 표지기를 따라 부지런히 발을 움직인다.

큰 바위 옆에 폭포가는 길이라는 표지판 및 내원암굴 내려가는 표지기가 있어 길이 계곡을 따라 나아간다는 것을 짐작하게 받는다.

내원암 계곡의 물소리를 위안삼아 능선을 따라 전진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안개가 계곡을 피어 오르며 또 한번 불안을 낳는다. 설악산 그대는 정녕 천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인간을 거부하는 몸짓인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한 장난인가를 중얼거리며 그래도 중간 중간 표시기가 있어 조금은 안심을 하며 마루금을 부지런히 올라가기 시작한다.

산행기에 의한 정보도 없이 오로지 지도와 나침반에 의지하여 감각적으로 전진하는 산행은 누군가 말했던가 공비산행이라고. 목표지점을 찾지 못하면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은 낙오자의 심정과 같으리라. 사천왕의 리더로서 좁디 지도를 연구하고 오지 못한 나 자신을 나무라며 부지런히 오감을 활용하여 제3의 목표인 황철봉에서 내리오는 삼거리를 찾는다.

삼거리 도착(16:20)

1.09봉을 어리짐작으로 통과하면서 안개가 조금 걷히 눈으로 황철봉을 확인하고는 조금은 안심이 되면서 갑자기 배가 고파오기 시작한다. 그래도 확실하게 3기리를 찾기 위하여 소로길을 움직여 눈에 익은 고사목이 쓰러져 있는 삼거리에 도착한다.

작년과 올해 두 번을 지나간 길이라 조금은 눈에 익은 삼거리에 도착하니 1.09봉으로 올라가는 표시가 전혀 없어 눈여겨 보지 않으면 진입로를 찾기가 쉽지 않다. 안개가 조금 열려 지면서 제 멀리 너털지대가 눈에 들어오고 황철봉이 아스라히 보인다.

일단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이 들면서 배낭을 풀어 남아 있는 김밥을 나누어 먹고 확실하게 자신이 없어 우선 미시령휴게소가 보이는 지점까지 이동하기로 하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반걸음을 움직인다.

다음에 온 기회가 있다면 미시령에서 설악동까지 가면서 잃어버린 길을 찾아 설악산과 디 가까워 질 수 있기를 받아보기도 한다. 미시령휴게소를 향하여 10분 정도 하산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내리가는 소로가 보이는 데 이는 부시하고 계속 직진하여야만 한다.

조금은 지겹다고 느껴질 즈음이면 나무숲이 작아지면서 미시령휴게소의 음악소리가 점점 키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말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가며 전진하여야 한다. 삼거리에서 30여분 지나면 참복숲이 열은 조그만 공터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내리가는 소로가 나온다. 소로를 5분 정도 내리가면 미시령휴게소 올라가는 도로가 보이고 차량이 눈에 들어오면서 오늘 산행이 끝났음을 알리 준다.

미시령휴게소 초입 도착, 오늘 산행 완료(16:55)

소로길 끝 지점에 있는 칠방을 조심하여 내려서면 도로가 나오고 미시령휴게소 출입구가 눈에 들어 온다. 산악대장에게 하산하였음을 전화로 알리니 한 분이 숲이 조금 과하여 설악동에서 출발이 지연된다고 하여 우리는 산악감시원이 있을 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미시령휴게소 출입구 옆 공터에 진을 치고 마지막 남은 음식을 털어 최후의 만찬을 벌인다. 여전히 미시령의 안개는 초가을의 시늘한 바람을 불고와 등에 서린 땀으로 추위를 느끼게 만든다.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우리는 산악감시원이 없는 느낌이 들어 차가 올 때까지 미시령휴게소 찻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오늘의 산행을 반성해 본다.

1. 남한의 가장 악산인 설악산을 산행하면서 지도에

대한 공부가 소홀했다.

2. 안개가 풀려 온 것을 대비한 지도상 방향표시가 없었다.
3. 추위와 사고에 대비한 어빌웃 준비가 부족했다.

11월의 나뭇정맥 산행을 위한 훈련구간으로 손색이 없는 실악산 1만방 코스인 북우제에서 계조암을 거쳐 미시령휴게소까지의 산행은 앞으로의 산행준비에 많은 것을 깨우쳐 주는 교훈산행이요 공비산행이라는 결론을 내리본다.

<울산마위의 진실>

외설악 신봉사 앞에서 서북계곡으로 따라 올라가 내원암을 지나 산마루에 올라서면 엄청난 암산이 가로막고 있다. 이 산이 바로 울산마위이다.

조물주가 강원도 땅에다 천하의 명산 하나를 만들되 산봉의 수를 꼭 1만2천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각 지방의 산봉 중에서 준수하기로나 웅대하기로나 남의 눈을 끌만한 산에게 영을 내려 모일모일 모시를 기한으로 금강산 쪽으로 오면 심사하여 함격한 산에 대하여는 용모에 알맞은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 이에 전국 각처의 수많은 산들이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모두 모여 들었다.

이때 경상도 울산(蔚山) 땅에 돌레가 10리나 되며 웅장한 마위인 '울산마위'도 금강산으로 떠나왔다. 그러나 태백산령을 걸어오는데 워낙 뭉겁이 육중해 빨리 갈을 수 없어 온힘을 나해 갔었으나 설악산 지금의 울산바위 있는 근처까지 와 기진맥진해 있었다. 이곳에서 하루를 쉬 뒤에 다음날 다시 육중한 몸을 끌며, 금강산에 가서 조물주를 만나기로 했다.

다음날 울산마위가 금강산 어귀에 들어섰으나 이미

1만2천봉이 다 왔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귀로에 올랐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주위의 웃음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 바위는 이젓밤 쉬던 곳을 생각했다. 이차피 금강산에서 단역을 하느니, 외설악에서 주역 노릇을 하자는 생각으로 울산바위는 현재 외설악 중턱에 자리잡았다.

이 전설과는 달리 울산(鬱山)마위의 울(鬱)은 울타리를 뜻하는 말로 울산(蔚山)의 울(蔚)자와는 완전히 글자가 다르다. 다만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울산에서 왔기에 울산바위라는 말이 붙은 것이다. 울산바위는 울타리처럼 생겼다는 의미에서 울산마위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현실성 있다.


<달마봉>

달마봉은 실악산 북쪽에 매달려 있으며 실악산 국립공원 내에서는 속조시와 시퍼런 동해마나를 제일 가깝게 바라볼 수 있는 산이다.

산세는 둥글둥글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만 암봉과 암봉으로 돌돌 봉쳐 있으며 설악산 깊숙한 속내까지 훑쳐볼 수가 있어 덩치큰 대청봉도 달마봉이 고개를 쳐들까 봐 두눈을 항상 부릅뜨고 있다.

마위덩어리 위에 올라서서 북쪽에서 서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높은 산꼭대기에서 주르르 흘러 내려와 시퍼런 마닷물로 풍덩 빠져 버려 수평선으로 비껴러지며 눈을 크게 뜨고 남쪽으로 돌리면만 잔잔한 수평선에서 하늘높이 치솟은 대청봉이 나타나면 아이고 숨차, 다시 되돌렸다가 남쪽으로 돌릴라치면 아이고 숨차 대청봉이 하늘로 폭 솟아 있네. 서쪽으로는 남남해자꾸만 동쪽만을 쳐다봐 진다.

달마봉을 분에 오르면 진달래 피고 새가 우는 자연

속으로 황홀함에 해지는 줄 모르고, 가을에 붉게 타오
르던 단풍물결에 도취되어 웬지 고개가 동쪽보다도
서쪽으로 자꾸만 돌아간다. 아마도 설악산 깊은 속내
를 훑쳐보기 위함인가 보다. 



(달마봉에서 조계암으로 하산길에서 바라본 울산바위)